

보스턴에서 연수를 마치고

한양대학교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김상헌

2014년 1월 말에 귀국하여 이제 연수 후기를 쓰려니 마치 오래 전 꿈같은 일처럼 느껴집니다. 귀국한지 채 1년이 되지 않았는데 말이지요. 연수 다녀오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쓰려니 당시에 여러 가지 고생했던 일들과 즐거웠던 순간들을 더듬게 되는 시간이 무척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짧은 시간 동안 연구와 관련하여 이론 것은 별로 없지만, 평생 간직할 기억들은 많이 남는 듯 합니다. 실은 너무 많은 일을 겪어서 주변에서 책을 써보라고 할 정도였는데 이제는 웃으면서 이야기할 추억입니다.

제가 속한 실험실은 Brigham and Women's Hospital (BWH)의 호흡기분과였습니다. BWH는 Boston에 있던 Peter Bent Brigham Hospital과 Free Hospital for Women 등 4개 병원이 합병되어 설립된 병원으로 현재의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Harvard 부속병원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Harvard Medical School의 교육병원으로 계약된 Boston의 여러 병원 중에서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MGH)와 더불어 Big 2를 이루고 있습니다. Boston에 연수오시는 여러 분야의 MD 선생님들이 연수를 하는 곳은 따라서 MGH와 BWH 둘 중 하나에 속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 외에도 Beth Israel Medical Center와 Dana Farber Cancer Institute에도 오시는데 이 기관들은 BWH와 함께 Longwood medical complex에 속해 있습니다. 저는 연수를 Augustine Choi 선생님 밑에서 하였습니다. 흔히 줄여서 Choi lab이라고 부르는 곳이지요. 이 실험실은 이전에 여러 호흡기 선생님들께서 안식년으로 또는 PhD 선생님들이 Postdoc fellow로 많이 다녀가셨기에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 알려진 바 있습니다. 알레르기학사로는 제가 처음이기는 하지만 Choi 선생님께서 몇 년 전 알레르기학회에서 초청강의도 하셔서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 관심분야가 autophagy, inflammasome, innate immunity, carbon oxide 이고 질환으로는 acute lung injury, sepsis 등 중환자의학 질환과 COPD를 주로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있을 때에도 연구 분야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어서 mitophagy, mitochondrial metabolism, vesicle, lung-kidney interaction 등 새로운 연구주제를 찾아나가는 과정이 흥미로웠고, 과거에 안주하면 안 되는 것도 배웠습니다. 저희 실험실은 research fund가 많고 호흡기내과 과장이만큼 호흡기내과에서 가장 큰 실험실이었습니다. 그만큼 lab member가 많았는데 제가 연수하는 기간에는 한국 분도 꽤 많이 있어서 아산병원 허진원 선생님, 송진우 선생님 등과 몇 분의 PhD 선생님, 심지어 류마티스, 신장내과 선생님도 합류하였고, 1달 단기연수로 오셨던 분도 꽤 있어서 한국에서 오신 분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영어가 늘지 않은 좋은 변명이 되겠지요?) 연수 중간에 Choi 선생님께서 뉴욕 Cornell 대학으로 옮기시면서 실험실을 이사 보내고 남겨지는, 흔히 하기 어려운 경험을 했습니다. Boston과 뉴욕의 실험실 2개를 유지하는 시간을 약 6개월 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lab meeting을 Skype나 전화로 하는 teleconference를 한 것도 이제는 추억입니다.

실험실 생활은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처음 해보는 실험 기법들에

적응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원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조급증이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연수를 다녀오시면서 좋은 결과물을 가져오셨던 선배님들이 그렇게 훌륭해 보일 수 없을 정도로 말이지요. 실험실은 소위 Harvard 실험실이라고 하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낡은 bench와 오래된 실험기기들이 많았고, 그나마도 여기저기 실험장비를 찾아 이 건물 저 건물 왔다 갔다 해야 했습니다. 그런 열악한 조건에서도 훌륭한 연구성과를 내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차가운 비와 눈을 맞으며 건물 사이를 떠돌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실험실이 열악해서, 실험장비가 낡아서 실험을 못한다는 핑계는 못 대겠구나 하는 부끄러움도 들었습니다. 또 하나, 보스턴에서는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연수 전 저희 병원에서 가장 걸음이 빠르게 다니는 남자로 1위를 했던 저였는데, 출근길 저를 앞질러가는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동부의 여유 없는 바쁨에 놀랐습니다.

연수하는 곳으로서의 Boston은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Grant가 열악해지는 현실에서 그나마 연구비가 풍족한 실험실들이 좀 있고 연구가 활발한 실험실들이 가까이 몰려 있기에 co-work하는 분위기와 환경이 무척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공동연구를 직접 하기 어려운 fellow 신분이기엔 하였지만 podcast로만 들었던 Partners Asthma Center의 Asthma Grand Round의 연자 직강을 듣는 경험을 할 수 있었고 호흡기내과에서 매주 공지되는 다양한 conference, Pulmonary Grand Rounds, Pulmonary Work-in-progress 등 여러 발표 프로그램을 찾아 듣고 각 연구자들이 어떤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고 networking이 되어있는지 알아가는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실험실 환경을 떠나서 1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을 보낼 곳으로도 Boston은 추천할 만합니다. 걸어 갈만한 거리 안에 미국의 역사를 간직한 Boston의 여러 유적지를 둘러볼만 하고, Charles 강변의 산책은 여유로우며, 미술관과 음악회도 개인 관심도에 따라 즐길 것들이 많아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물론 악명 높은 아파트 월세와 생활비, 긴 겨울의 추위와 많은 눈, 그에 따라 짧아질 수 밖에 없는 야외활동은 Boston에서 각오해야 할 몇 가지 것들입니다.

글을 쓰는 동안 Boston의 기억들이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실험실까지 발이 되어준 낡은 T의 벨소리, 병원 근처의 Longwood station의 풍경들, 고요히 흐르던 Muddy river의 출근길과 껍껍거리던 Canada goose들, 실험실 창문 너머로 보이던 보스턴 풍경, 집근처 도서관의 평화로운 분위기, 아내가 싸주었던 도시락과 추위를 달래주고 잠을 깨워주었던 병원 1층 Au Bon Pain 커피도 그립습니다. 아무쪼록 이 글이 연수를 다녀오신 분들에게는 이전의 좋은 경험을 되새기는 시간이, 그리고 연수를 앞둔 분들에게는 들뜬 기대를 갖는 기회이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연수기간 동안 여러 방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응원해주셨던 윤호주 교수님과 알레르기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